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박 종 천**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Park, Jong Chun**

요약 : 인구 고령화는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서 비롯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빈곤과 역할 상실, 소외, 건강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노인의 여가 선용이다. 노년기의 여가 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 등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친밀성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이바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 여가활동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노인 여가활동을 지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이 지역에 따라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광주는 주로 집안에서, 고흥지역은 친목도모를 위한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참여유형, 가정 내외의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의 목적 및 만족도, 국내여행 빈도를 포함한 여가활동 등 많은 분야에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주요어 : 인구고령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노인여가

Abstract : The aging of population stems from the decline of birth and death rates. A sudden aging society results in a variety of social issues like the poverty, role loss, alienation, health problems, etc. of the elderly. What counts in solving these issue is to make good use of the leisure time of the elderly. Leisure activities in the elderly help maintain and improve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have a great influence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In addition, they contribute to building up a healthy social structure by forming a social intimacy. Despite these positive aspects of leisure activities, however, multiple factors prevent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from being actively pursued. In this respect, since there is a need to take a look at how the varied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expose themselves in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made an investigation so as to see what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each region has in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65 or above.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out: the elderly in Seoul enjoy a relatively wide range of leisure activities compared with other regions; the elderly in Gwangju spend their time mainly at home; and the elderly in the Goheung region take part in leisure activities aimed at promoting friendship.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regions in the areas of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the type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at and out of home, the purpose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and the frequency of domestic trips.

Key Words : aging of population, aging society, aged society, elderly of the leisure

1. 서 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5만 7,000명으로 총 인구의 11.0%를 차지한다. 2010

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조사결과는 이보다 6만 8,0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10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3만 7,000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 4,887만 5,000명 중 12.4%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UN이 분류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의한 65세 이상 지

* 이 연구는 필자가 2010년 2월 고령화 사회 노인 여가활동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내용 일부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banyabong@yahoo.co.kr)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역별 인구비율을 보면,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4%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67개(232개 중 28.9%)로 확인되고 있다.¹⁾

UN은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미만 사회를 젊은 사회, 4%~7% 사회를 성숙한 사회, 7%~14%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20%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 사회를 초 고령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세계적 추세인 인구 고령화는 수명연장과 더불어 저 출산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가 소리 없이 도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의 역할 없는 상태는 평균 20~30년간 지속된다. 대부분의 고령 노인은 은퇴와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빈곤과 건강문제, 소외 등으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주요원인은 노인의 의존적 욕구로 설명 할 수 있다.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존성의 유형은 ① 경제 능력 약화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 ②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 인한 신체적 의존성 ③ 중추신경 조직의 퇴화로 인한 정신적 의존성 ④ 생활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을 잃음으로 생기는 사회적 의존성과 심리 정서적인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고 노인의 활동영역을 증대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달성하는데 있어 노인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의 긴 여가를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느냐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위축된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고독과 소외감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무위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기 유용감과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잠재적 능력을 확인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노인여가 활동은 삶을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일상적인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며, 개인적인 발전과 동

시에 전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고령자 스스로는 신체적 특성의 변화와 시간적 특성의 변화를 고려해 노년기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노인의 NEED에 적합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여가 활동유형의 지리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여가의 유형과 제약이 지리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가시설과 정책으로 노인의 활동적 여가를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특성이 지리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고흥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²⁾ 표집설계는 해당 시, 군의 행정구역을 참조하여 서울특별시는 집락 무선 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서울을 동서로 강서구, 강동구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분한 뒤, 다시 사분한 선상에 위치한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남구 4개구에 산재한 각 동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구별로 임의의 2개동을 선정하였다. 집락 무선 표집법을 사용한 이유는 조사과정을 간편하게 하기위해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단점인 표집오차가 단순 무선 표집보다 커지므로 이를 보완하기위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였다.

광주광역시는 표본오차를 적게 하고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층으로 분할한 후, 각 층별로 단순임의추출법을 적용해 표본을 얻는 방법인 충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무작위추출법에 비해 추정의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전체 모집단에 결과 뿐만 아니라 각 층별로도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를 5개구로 나눈 후 5개구에 산재한 각 동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구별로 임의의 2개동을 선정하였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2개읍 14개 면을 분류한 후 단순 무작위 표집법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은 모집단이 타 지역에 비해 적어 각 지역별로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하고 표집이 전체를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정된 각 지역마다 65세 이상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원이 직접 개별면접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서울특별시 320부, 광주광역시 150부, 전라남도 고흥군 80부, 총 550부를 배포한 후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농촌지역인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 여가활동과 관광, 여행을 통한 여가활동 특성이 지리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통계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항목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1차로 산출하였으며, 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척도 유형에 따라 X^2 -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Tukey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평균차이를 구체적 알아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관련기관에서 이미 연구하여 발표된 서적이나 문헌 그리고 논문들을 활용하고 참고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정의

노인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이든 사람 또는 늙은이로 정의하고 있다. L. Breen(1960)과 Birren(1959)은 노인을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Personality)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심리적 노화(Psychological)는 축척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노화(Sociological aging)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

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이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 간의 차이와 개인 내적인 차이를 무시해 노인에 대한 잘못된 규범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인 면과 노화의 제 특성을 많이 수용하고 있으며, 관찰과 판단의 용이성, 사회입법적인 면, 행정적인 면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의는 노인들이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넷째, 인체기관의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다섯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2) 여가 및 노인 여가의 개념

사회학 사전에 의하면, 여가는 24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및 기타 생활 필수적인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제외한 잉여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Leisure)의 어원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라틴어 라이세레(lucere)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여기는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여가의 시간적 개념은 일이나 그 밖의 의무 활동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시간으로 Stanley Parker는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는 잔여시간을 여가로 보고 있다. Bright Bill은 여가를 일이나 의무적인 시간에서 남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Murphy는 자기 결정적 상황 하에서 재량껏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 하였고, Kelly and Kraus는 여가를 의무적 활동에서 남는 시간과 생활 필수적 시간에서 남는 시간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활동적 개념은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가사업무, 공동사회에서 임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의 교양증진을 위한 활

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모두 여가 활동으로 보고 위락적 측면을 강조한다. Wilson은 여가를 활동과 기회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인식하였다.셋째, 상태적 개념은 단순히 시간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가에 참여하는 활동이나 참여자의 정신적 상태에 의해 여가를 정의하는 것이다. Kelly는 개인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라 정의하였으며, John Neulinger는 여가란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였으며, J. Dumazedier는 여가를 휴식, 기분전환, 또는 지식의 확대 등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제도적 개념으로서 여가의 본질은 노동, 교육, 결혼, 정치, 경제 등 사회제도의 상태나 가치 패턴의 관련성을 검토해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Max Kaplan은 여가란 독특한 규범과 제약을 수반하며, 위락, 개인 발전, 타인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자율적 활동 경험으로 정의 하였고, Veblen은 여가를 상류 사회 계층들의 소유욕과 사회적 위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개념의 여가는 위의 모든 이론의 통합적 개념으로 인간행위의 모든 측면에 걸쳐 표출될 수 있는 여가활동 요소를 종합한 것이다.

Stanley Parker(1972)는 여러 가지의 여가개념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서 24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과 신체적 및 생리적 기본욕구충족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 두 번째는 활동의 질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자유와 평화를 느끼는 활동,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합된 정의로서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활동의 시간을 여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Havighurst는 노년기의 여가란 노후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긴장상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구하고 자기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미로서의 여가가 노인에게 필요하며, 노인의 문화성,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젊었을 때에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여가의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Max Kaplan은 노년기 여가활동은 ① 여가 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②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③ 정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즐기려는 욕구, ④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⑤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⑥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려는 욕구, ⑦ 영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구, ⑧ 적절한 주거 조건과 가족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 ⑨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 ⑩ 자신이 지역 사회의 한 부분으로 느껴지고 싶은 욕구 등을 충족시킴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년기의 여가 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 등 개인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니며, 노년기 생활 만족도 및 삶의 행복감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 간 노인 여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 포괄적으로 정의한 여가의 개념과 같은 틀에서 이해 할 수 있다.

3) 노인여가 활동의 유형

김광득(2000)은 노인여가 활동 유형을 신체활동형, 우인교류형, 독서형, 가족충실행, 사회참여형, 시간소일형으로 구분하였고, 김태현(1994)은 단독 충실행, 가족충실행, 우인교류형, 독서형, 사회참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박재간(1997)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 자녀와의 이야기 등의 가족 중심 형과 가정 밖에서 취미, 오락, 학습, 단체 활동 등을 통한 활동과 자녀 방문 등 가족활동 중심 형으로 나누고 있다.

남기민(1998)은 노인의 여가유형은 개인의 성격, 교육정도, 경제적 수준과 과거의 습관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는데 혼히 노인들의 여가유형은 가족중심의 가정 내 여가유형과 가정 밖에서 여가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Havighurst는 여가유형을 첫째, 가사활동으로는 세대 간 유대, 궤적한 가정형성, 요리활동, 둘째, 가족생활활동으로는 육아, 친지방문, 가족원과의 통신, 셋째, 종교 활동으로는 미사참례,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 성서공부, 넷째, 정치활동, 정당 활동, 다섯째, 사회봉사활동으로는 자선사업, 사회복지활동, 여섯째, 우인관계로는 친구, 이웃과의 교제 일곱 번째,

표 1. 학자별 여가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기준	여가활동유형
한국관광공사	활동유형	행락 및 관광활동, 모임·사교활동, 감상·관람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창작활동
신현주·박시범	라이프 스타일	야외활동형, 문화적 활동형, 스포츠 활동, 사회적 활동형, 취미 활동형, 대중매체형, 창조적 예술추구형, 오락추구형
김광득	여가동기·활동내용	스포츠·건강 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사교활동, 감상·관람 활동, 행락·관광활동
에퍼슨(Epperson)	참여유형	관람활동, 야외레크리에이션활동, 개인·소집단활동, 기계적 스포츠 활동, 클럽·리조트·별장활동
스잘라이(Szali)	활동유형	준여가, 수동적 여가, 총체적 여가
머피(Murphy)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활동, 병행활동, 협동 활동
루트진(Lutzin)	동기 및 표현형태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
이소아홀라(Iso-Ahola)	여가행태	스포츠 활동, 사교활동, 공작활동
오스너(Orthner)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활동, 병행활동, 결합 활동
클러프(Clough)	참여자의 동기	복지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 도전적 여가활동, 지위 추구 형 여가활동, 탐험형 그리고 건강 추구 형 여가활동

자료: 오상훈 등, 2006,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pp.115-119. 연구자 재구성

취미오락으로는 원예, 화훼수집, 스포츠, 음악 감상, TV시청 등으로 구분하였다(최순남, 1999). Takahashi는 첫째, 단독충실 형으로는 미술, 음악 감상, 서예, 다도, 사진촬영, 우표나 고전 수집, 둘째, 우인 교류 형으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회식을 화거나 대화하기, 셋째, 독서 형으로는 독서, 문집 정리, 신문, 잡지 스크랩, 문헌 수집, 넷째, 가족충 실 형으로는 정원 손질, 가옥의 미화작업, 가족동반 외식 및 소풍, 다섯째, 사회참여 형으로는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활동, 정치단체 참가 등으로 구분하였다(김태현, 1995).

<표 1>은 국내외 학자들이 여가 활동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노인여가 활동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다양한 여가 유형 중 여기에서는 여가활동 참가유형에 따라 단독충 실형(별다른 취미와 활동 없이 집에서 단순한 소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형), 우인교류형(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경로당, 복덕방, 방문으로 또래 노인들과의 여행 등에 적극 참여하는 형), 가족충실행(가족동반의 모임이나 가족행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가족동반외

식, 가족단위 소풍, 가족여행, 관혼상제에 많은 참여 형), 자아추구형(취미생활이나 노인학교, 교양 강좌 등 배움을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형), 건강추구형(운동, 등산 등을 통한 건강 증진과 병원진료 물리치료 등 적극적 신체 노화에 대처하는 형), 사회참여형(자원봉사활동, 정치단체활동, 향우회, 친목회 등 사회참여를 통해 기쁨을 추구하는 형) 등 6가지 유형으로 노인 여가를 구분하였다.

3. 노인여가 활동의 지리적 특성 분석

노인여가 활동의 지리적 특성 분석에 앞서 연구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여가활동의 참여유형, 가정 내, 가정 밖 여가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교양강좌 학습활동 장소, 건강관리 운동, 사회활동 참여, 여가 활동 목적,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의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 최근 2년간 국내 여행 빈도와 국내 방문 관광지, 관광여행일정, 여행경비 충당방법, 마지막으로 관광, 여행을 통한 좋은 점에 대하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여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변인별 특성

〈표 2〉는 연구지역 표본 집단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녀 비율은 남자 305명(55.5%), 여자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인	N	%
거주지	서울	320	58.2
	광주	150	27.3
	고흥	80	14.5
성 별	남자	305	55.5
	여자	245	44.5
연 령	65~70세	332	60.4
	71~75세	132	24.0
	76~80세	56	10.2
	80세 이상	30	5.5
배우자 유무	있다	400	72.7
	없다	150	27.3
종 교	불교	184	33.5
	기독교	148	26.9
	천주교	53	9.6
	없음	132	24.0
	기타	33	6.0
학 력	무학	50	9.1
	초등학교	204	37.1
	중학교	134	24.4
	고등학교	103	18.7
	전문대~대학교	55	10.0
	대학원 이상	4	.7
연 금	기초생활보장수급	55	10.0
	공적연금수급	214	38.9
	없음	281	51.1
노후준비 시기	30대	72	13.1
	40대	77	14.0
	50대	54	9.8
	60대	59	10.7
	하지 않았음	288	52.4
전 체		550	100.0

245명(44.5%)이다. 연령 별로 보면 65~70세가 332명(60.4%), 71~75세가 132명(24.0%), 76~80세가 56명(10.2%), 80세 이상이 30명(5.5%)이며,

표 3. 변인별 특성 (단위: 명, %)

	변 인	N	%
직업 유무	있다	209	38.0
	없다	341	62.0
직업 형태	시간제 근무	22	10.5
	일용직	41	19.6
	계약직	8	3.8
	정규직	15	7.2
	자영업	41	19.6
	농·수산업	59	28.2
	기타	23	11.0
	50만원 이하	169	30.7
월수입	50~100만원	178	32.4
	100~200만원	106	19.3
	200~300만원	42	7.6
	300~400만원	6	1.1
	400만원 이상	3	.5
	없다	46	8.4
	5만원 이하	74	13.5
	5~10만원	130	23.6
한 달 용돈	10~20만원	133	24.2
	20~30만원	92	16.7
	30~50만원	78	14.2
	50~100만원	39	7.1
	100만원 이상	4	.7
	혼자	99	18.0
	배우자와 함께	271	49.3
동거자	자녀와 함께	71	12.9
	배우자, 자녀와 함께	102	18.5
	기타	7	1.3
	본인 또는 배우자	285	51.8
집 소유자	동거 자녀	98	17.8
	전세	122	22.2
	월세	37	6.7
	기타	8	1.5
	전 체	550	100.0

배우자가 있는 경우 400명(72.7%),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50명(27.3%)이다. 먼저 노인들의 노후 준비시기를 확인해 보면 30대부터 13.1%, 40대부터가 14%, 50대부터가 9.8%, 60대부터가 10.7%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2.4%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노후를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들이 노후에 장구한 시간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한다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표 3>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있는 경우 209명(38.4%), 직업이 없는 경우 341명(62.0%)로 조사되었으며, 직업 형태로는 농수산업 59명(28.2%), 일용직, 자영업 각 41명(각19.6%), 시간제 근무 22명(10.5%), 정규직 15명(7.2%)순으로 조사되었다. 월수입은 50만원~100만원(32.4%)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50만원 이하 169명(30.7%) 100만원~200만원 106명(19.3%) 200만원~300만원 42명(7.6%) 300만원 이상도 9명(1.6%)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10만원~20만원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만원~10만원 130명(23.6%) 20만원~30만원이 92명(16.7%) 30만원~50만원이 78명(14.2%) 5만원 이하 74명(13.5%) 50만원~100만원 39명(7.1%) 100만원 이상이 4명(7%)으로

조사되었다. 동거형태로는 혼자 사는 사람이 99명(18%)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271명(49.3%)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02명(18.5%) 기타 7명(1.3%)으로 조사되었으며, 집 소유자 별 유형을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가 285명(51.8%) 동거 자녀 소유가 98명(17.8%) 전세 122명(22.2%) 월세 37명(6.7%) 순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노인 대부분은 직업이 없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이고,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하이며,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여가활동의 참여 유형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대한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면 공원, 약수터, 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고, TV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 신문보기도 31.6%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및 교양강좌 참여(4.4%)와 자원봉사, 정치단체 활동, 향우회 등 사회참여 활동(4.2%)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노인의 특징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 신

표 4. 여가활동의 참여유형

(단위: 명, %)

구 분	A	B	C	D	E	F	합 계
서울	80 (25.0)	109 (34.1)	40 (12.5)	16 (5.0)	58 (18.1)	17 (5.3)	320 (100.0)
	60 (40.0)	48 (32.0)	12 (8.0)	7 (4.7)	18 (12.0)	5 (3.3)	150 (100.0)
고 흥	34 (42.5)	40 (50.0)	4 (5.0)	1 (1.3)	0 (.0)	1 (1.3)	80 (100.0)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chi^2=41.329^{***}$							
$df=10$							
$p=.000$							
***p<.001							
주 : A : TV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 신문보기(단독충실타입)							
B : 공원, 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림(우인교류형)							
C : 집안일, 가족행사, 관혼상제 등 가족과 함께 시간 보냄(가족충실타입)							
D :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및 교양강좌에 참여(자아추구형)							
E : 운동, 등산 등 건강관리(건강추구형)							
F : 자원봉사, 정치단체활동, 향우회, 사회참여 활동(사회참여형)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자리적 특성

문보기 등단독충실형 여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집안일, 가족행사, 관혼상제 등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12.5%) 우인교류형 여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TV시청, 라

디오 청취, 인터넷, 신문보기(40.0%)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이 가장 많았고, 고흥지역은 공원, 약수터, 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림(50.0%)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운동, 등산 등

표 5. 직업유무, 직업별, 월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단위: 명, %)

변인	구분	A	B	C	D	E	F	합계
직업 유무	있다	65 (31.1)	65 (31.1)	22 (10.5)	10 (4.8)	34 (16.3)	13 (6.2)	209 (100.0)
	없다	109 (32.0)	132 (38.7)	34 (10.0)	14 (4.1)	42 (12.3)	10 (2.9)	341 (100.0)
	합계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직업	시간제 근무	9 (40.9)	4 (18.2)	2 (9.1)	1 (4.5)	5 (22.7)	1 (4.5)	22 (100.0)
	일용직	15 (36.6)	7 (17.1)	8 (19.5)	1 (2.4)	6 (14.6)	4 (9.8)	41 (100.0)
	계약직	1 (12.5)	1 (12.5)	2 (25.0)	3 (37.5)	1 (12.5)	0 (0.0)	8 (100.0)
	정규직	3 (20.0)	3 (20.0)	1 (6.7)	1 (6.7)	5 (33.3)	2 (13.3)	15 (100.0)
	자영업	7 (17.1)	16 (39.0)	6 (14.6)	2 (4.9)	8 (19.5)	2 (4.9)	41 (100.0)
	농· 수산업	22 (37.3)	29 (49.2)	4 (6.8)	2 (3.4)	1 (1.7)	1 (1.7)	59 (100.0)
	기타	8 (34.8)	5 (21.7)	0 (0.0)	0 (0.0)	7 (30.4)	3 (13.0)	23 (100.0)
월 수입	합계	65 (31.1)	65 (31.1)	22 (10.5)	10 (4.8)	34 (16.3)	13 (6.2)	209 (100.0)
	없음	59 (34.9)	77 (45.6)	13 (7.7)	2 (1.2)	13 (7.7)	5 (3.0)	169 (100.0)
	50만원 이하	51 (28.7)	58 (32.6)	25 (14.0)	8 (4.5)	31 (17.4)	5 (2.8)	178 (100.0)
	50~100만원	39 (36.8)	24 (22.6)	8 (7.5)	6 (5.7)	23 (21.7)	6 (5.7)	106 (100.0)
	100~200만원	15 (35.7)	7 (16.7)	2 (4.8)	6 (14.3)	7 (16.7)	5 (11.9)	42 (100.0)
	200~300만원	0 (0.)	2 (33.3)	2 (33.3)	0 (0.)	1 (16.7)	1 (16.7)	6 (100.0)
	300~400만원	1 (33.3)	0 (0.)	0 (0.0)	0 (0.0)	1 (33.3)	1 (33.3)	3 (100.0)
4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9 (19.6)	29 (63.0)	6 (13.0)	2 (4.3)	0 (0.0)	0 (0.0)	46 (100.0)
	합계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전체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p<.001

$\chi^2=7.115$
 $df=5$
 $p=.212$

$\chi^2=68.165^{***}$
 $df=30$
 $p=.000$

$\chi^2=91.548^{***}$
 $df=30$
 $p=.000$

A~F(표6) 주와 동일

건강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노인들의 여가 활동 유형은 우인교류형, 단독충실형, 건강추구형, 가족충실형, 자아추구형,

사회참여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요약해 보면, 서울지역 노인은 다른 지역 노인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지역 노

표 6. 용돈, 동거자, 집 소유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단위: 명, %)

변인	구분	A	B	C	D	E	F	합계
용 돈	5만원 이하	28 (37.8)	40 (54.1)	5 (6.8)	0 (.0)	0 (.0)	1 (1.4)	74 (100.0)
	5~10만원	40 (30.8)	56 (43.1)	17 (13.1)	3 (2.3)	13 (10.0)	1 (.8)	130 (100.0)
	10~20만원	36 (27.1)	49 (36.8)	13 (9.8)	8 (6.0)	20 (15.0)	7 (5.3)	133 (100.0)
	20~30만원	21 (22.8)	29 (31.5)	13 (14.1)	3 (3.3)	20 (21.7)	6 (6.5)	92 (100.0)
	30~50만원	29 (37.2)	21 (26.9)	3 (3.8)	6 (7.7)	13 (16.7)	6 (7.7)	78 (100.0)
	50~100만원	20 (51.3)	2 (5.1)	4 (10.3)	4 (10.3)	9 (23.1)	0 (.0)	39 (100.0)
	100만원 이상	0 (.0)	0 (.0)	1 (25.0)	0 (.0)	1 (25.0)	2 (50.0)	4 (100.0)
	합계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동 거 자	혼자	43 (43.4)	40 (40.4)	6 (6.1)	1 (1.0)	7 (7.1)	2 (2.0)	99 (100.0)
	배우자와 함께	90 (33.2)	101 (37.3)	21 (7.7)	10 (3.7)	37 (13.7)	12 (4.4)	271 (100.0)
	자녀와 함께	14 (19.7)	26 (36.6)	16 (22.5)	3 (4.2)	11 (15.5)	1 (1.4)	71 (100.0)
	배우자·자녀와 함께	22 (21.6)	30 (29.4)	12 (11.8)	9 (8.8)	21 (20.6)	8 (7.8)	102 (100.0)
	기타	5 (71.4)	0 (.0)	1 (14.3)	1 (14.3)	0 (.0)	0 (.0)	7 (100.0)
	합계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본인 또는 배우자	98 (34.4)	91 (31.9)	21 (7.4)	17 (6.0)	44 (15.4)	14 (4.9)	285 (100.0)
	동거 자녀	20 (20.4)	35 (35.7)	18 (18.4)	4 (4.1)	17 (17.3)	4 (4.1)	98 (100.0)
집소 유자	전세	36 (29.5)	52 (42.6)	14 (11.5)	3 (2.5)	12 (9.8)	5 (4.1)	122 (100.0)
	월세	19 (51.4)	12 (32.4)	3 (8.1)	0 (.0)	3 (8.1)	0 (.0)	37 (100.0)
	기타	1 (12.5)	7 (87.5)	0 (.0)	0 (.0)	0 (.0)	0 (.0)	8 (100.0)
	합계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전체	174 (31.6)	197 (35.8)	56 (10.2)	24 (4.4)	76 (13.8)	23 (4.2)	550 (100.0)
								A~F(표 6) 주와 동일

***p<.001, **p<.0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인은 여가활동을 주로 집안에서 하고 있으며 고흥 지역은 친목도모를 위한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는 직업유무, 직업별, 월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가활동의 차이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무와 일용직은 TV 시청·라디오 청취·인터넷·신문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영업과 농·수산업에서는 공원·약수터·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계약직 종사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활동 및 교양강좌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며, 정규직과 기타 직업 소유자는 30%이상 높은 비율로 운동·등산 등을 통한 건강관리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은 직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노인의 월수입별 여가활동을 차이를 살펴보면, 수입이 없거나 50만원 이하의 소득은 공원·약수터·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50만원~200만원 미만의 소득은 TV시청·라디오 청취·인터넷·신문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소득의 노인은 공원·약수터·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63.0%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 차이로 요약해 보면 노인이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은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제 근무와 일용직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많으며 고용된 직업이 아닌 자영업과 농·수산업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고용이 안정적인 계약직과 정규직의 노인은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은 용돈, 동거자, 집 소유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용돈별 노인의 여가활동을 차이를 살펴보면, 용돈 5만원 이하부터 30만원까지는 공원·약수터·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0~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TV시청·라디오 청취·인터넷·신문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chi^2=101.460$ 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동거자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를 살펴보면, 혼자 사는 노인과 기타에서는 TV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 신문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배우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은 공원, 약수터, 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chi^2=56.032$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소유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 월세에 사는 노인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 신문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동거 자녀, 기타는 공원, 약수터, 복덕방 등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chi^2=40.657$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월수입에서는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이나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의 노인은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50~100만원 미만소득의 노인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에서는 30만원 미만은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가장 많고 30만원 이상은 언론매체를 접하며 여가활동을 보내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동거자가 있는 노인은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은 언론매체를 접하며 혼자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여가활동은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 여가활동의 주요 특성

가정 내 여가활동을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TV시청(48.4%), 라디오 청취(21.6%), 신문(17.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는 TV시청(72.7%), 화단, 정원손질(12.0%), 라디오청취(9.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고흥은 TV시청(82.5%), 신문보기(12.5%)의 순으로 높은

표 7. 가정 내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TV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	신문보기	화단, 정원 손질	합계
서울	155 (48.4)	69 (21.6)	16 (5.0)	56 (17.5)	24 (7.5)	320 (100.0)
광주	109 (72.7)	14 (9.3)	6 (4.0)	3 (2.0)	18 (12.0)	150 (100.0)
고흥	66 (82.5)	4 (5.0)	0 (0)	10 (12.5)	0 (0)	80 (100.0)
합계	330 (60.0)	87 (15.8)	22 (4.0)	69 (12.5)	42 (7.6)	550 (100.0)

***p<.001

 $\chi^2=67.888^{***}$
df=8
p=.000

여가활동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 밖 전체적인 노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근교등산·산보가 232명(4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원방문이 120명(21.8%), 경로당110명(20.0%), 복덕방 방문 56명(10.2%)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은 근교산보와 공원방문을 광주는 근교산보와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하며, 고흥은 경로당에서 57.5%가 32.5%는 근교산보를 하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하는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동반 외식(46.5%), 주거 미화작업(30.9%), 기타(9.5%), 가족여행(7.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지역적으로 여가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은 가족동반 외식(54.7%)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는 가족동반 외식(42.7%)과 주거 미화작업

(34.0%)으로 고흥은 주거 미화작업(68.8%)에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 장소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을 하지 않음이 252명(4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로당 142명(25.8%), 노인종합복지관 108명(19.6%)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은 4.1%, 광주는 3.3%, 고흥은 0%이다. 이는 노인들이 비용이 발생하는 학습활동과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유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음이 117명(43.1%)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등산 168명(30.5%), 스포츠댄스 54명(9.8%) 순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강관리는

표 8. 가정 밖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공원 방문	근교 등산·산보	약수터 방문	복덕방 방문	경로당	합계
서울	109 (34.1)	110 (34.4)	30 (9.4)	48 (15.0)	23 (7.2)	320 (100.0)
광주	9 (6.0)	96 (64.0)	1 (.7)	3 (2.0)	41 (27.3)	150 (100.0)
고흥	2 (2.5)	26 (32.5)	1 (1.3)	5 (6.3)	46 (57.5)	80 (100.0)
합계	120 (21.8)	232 (42.2)	32 (5.8)	56 (10.2)	110 (20.0)	550 (100.0)

***p<.001

 $\chi^2=197.795^{***}$
df=8
p=.000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표 9.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가족동반 외식	가족여행	가족소풍	주거 미화작업	기타	합계
서울	175 (54.7)	19 (5.9)	27 (8.4)	64 (20.0)	35 (10.9)	320 (100.0)
광주	64 (42.7)	16 (10.7)	2 (1.3)	51 (34.0)	17 (11.3)	150 (100.0)
고흥	17 (21.3)	8 (10.0)	0 (0.0)	55 (68.8)	0 (0.0)	80 (100.0)
합계	256 (46.5)	43 (7.8)	29 (5.3)	170 (30.9)	52 (9.5)	550 (100.0)

**p<.001

$\chi^2=92.957^{***}$
df=8
p=.000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 서울은 36.6%, 광주는 40.7%, 고흥은 73.8%가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의

건강관리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사회보장비중이 높은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경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10.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 장소

(단위: 명, %)

구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 휴게실	하지 않음	유료 학원	기타	합계
서울	78 (24.4)	7 (2.2)	95 (29.7)	2 (0.6)	124 (38.8)	13 (4.1)	0 (0.2)	320 (100.0)
광주	52 (34.7)	6 (4.0)	11 (7.3)	2 (1.3)	64 (42.7)	5 (3.3)	10 (6.7)	150 (100.0)
고흥	12 (15.0)	0 (0.0)	2 (2.5)	1 (1.3)	64 (80.0)	0 (0.0)	1 (1.3)	80 (100.0)
합계	142 (25.8)	13 (2.4)	108 (19.6)	5 (.9)	252 (45.8)	18 (3.3)	12 (2.2)	550 (100.0)

p<.001

$\chi^2=99.455^{***}$
df=12
p=.000

표 11.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단위: 명, %)

구분	등산	헬스 클럽	게이 트볼	테니스	골프	스포츠 댄스	하지 않음	기타	합계
서울	118 (36.9)	10 (3.1)	20 (6.3)	6 (1.9)	6 (1.8)	39 (12.2)	117 (36.6)	8 (2.5)	320 (100.0)
광주	43 (28.7)	2 (1.3)	3 (2.0)	2 (1.3)	7 (4.7)	14 (9.3)	61 (40.7)	18 (12.0)	150 (100.0)
고흥	7 (8.8)	2 (2.5)	1 (1.3)	2 (2.5)	1 (1.3)	1 (1.3)	59 (73.8)	7 (8.8)	80 (100.0)
합계	168 (30.5)	14 (2.5)	24 (4.4)	10 (1.8)	14 (2.5)	54 (9.8)	237 (43.1)	33 (6.0)	550 (100.0)

$\chi^2=75.535^{***}$
df=14
p=.000

***p<.00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안함이 246명(44.7%)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활동이 123명(22.4%), 동창회 56명(10.2%), 정치·사회단체 48명(8.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는 서울 6.3%, 광주 7.3% 고흥 6.2%로 조사되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은퇴한 노인들이 사회에서 역할과 지위를 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은퇴 노인들이 과거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여가활동 목적 및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면, 소외감 극복이 169명(30.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우인교류가 122명(22.2%), 건강증진 88명(16.0%), 가족화목 81명(14.7%), 취미·자아추구 59명(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소외감 극복이 97명(30.3%)로 가장 높았으며 우인교류 76명(23.8%), 건강 증진 58명(18.1%) 순이었다. 광주지역은 소외감 극복이 49명(3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우인교류 31명(20.7%)순이며, 고흥은 가족화목을 38명(47.5%)이 여가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꼽았다. 아직 농촌지역은 전통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이 평소 심리적으로 느끼는 여가활동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을 때, 전체적인 평균은

표 12. 사회활동 참여

(단위: 명, %)

구분	자원봉사	정치·사회단체	동창회	향우회	종교 활동	참여안함	합계
서울	20	39	31	37	69	124	320
	(6.3)	(12.2)	(9.7)	(11.6)	(21.6)	(38.8)	(100.0)
광주	11	5	23	5	37	69	150
	(7.3)	(3.3)	(15.3)	(3.3)	(24.7)	(46.0)	(100.0)
고흥	3	4	2	1	17	53	80
	(3.8)	(5.0)	(2.5)	(1.3)	(21.3)	(66.3)	(100.0)
합계	34	48	56	43	123	246	550
	(6.2)	(8.7)	(10.2)	(7.8)	(22.4)	(44.7)	(100.0)

$$\chi^2=45.776^{***}$$

$$df=10$$

$$p=.000$$

***p<.001

표 13. 여가활동 목적

(단위: 명, %)

구분	소외감 극복	우인교류	가족화목	취미·자아추구	건강증진	사회봉사 참여	기타	합계
서울	97	76	35	36	58	13	5	320
	(30.3)	(23.8)	(10.9)	(11.3)	(18.1)	(4.1)	(1.6)	(100.0)
광주	49	31	8	23	27	6	6	150
	(32.7)	(20.7)	(5.3)	(15.3)	(18.0)	(4.0)	(4.0)	(100.0)
고흥	23	15	38	0	3	0	1	80
	(28.8)	(18.8)	(47.5)	(0.0)	(3.8)	(0.0)	(1.3)	(100.0)
합계	169	122	81	59	88	19	12	550
	(30.7)	(22.2)	(14.7)	(10.7)	(16.0)	(3.5)	(2.2)	(100.0)

$$\chi^2=98.490^{***}$$

$$df=12$$

$$p=.000$$

***p<.00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자리적 특성

표 14.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

구 분	전 체		서울 (n=320)		광주 (n=150)		고흥 (n=80)		F
	M	SD	M	SD	M	SD	M	SD	
일반여가활동 만족도	2.96	.874	2.92	.866	2.72	.836	3.54	.711	25.538***

참조: N: 사례수, M: 평균, SD: 표준편차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보통이하($M=2.96$, $SD=.86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표 14), 고흥($M=3.54$), 서울($M=2.92$), 광주($M=2.72$) 순으로 분석되어 통계적 차이($F=25.53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지역 노인의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 평균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광주는 만족도 평균값이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상태의 여가활동 만족과 불만족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항목을 특정하여 지역별로 만족비율을 조사한 결과(표 17, 18)에서는 고흥지역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 비율을 보여 반대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가 고흥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가와 일상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소일하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무관치 않아 보이며 도시보다는 낙천적인 삶을 영위하는 지역 특유의 정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 할 수 있다.

<표 15, 16>에 의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일원변량분석과 자리적 차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F=25.53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흥과 서울, 광주지역 간 $p<.001$ 수준, 서울과 광주, 고흥지역 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고흥지역의 노인은 대도시인 서울, 광주지역의 노인보다 평소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다 할 수 있다.

노인의 평소 심리적 여가활동의 만족도와 실제 여가활동의 만족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화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전체 표본은 189명(34.4%)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 서울지역은 320명중에 113명(35.3%), 광주지역 150명중에 67명(44.6%), 고흥지역이 80명중에서 9명(11.2%)으로 조사되었다.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광주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흥지역은 전체의 11.2%만이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해 세 지역 중에서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농촌 지역의 경

표 15.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변 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일반여가활동 만족도	집단간	35.778	2	17.889	25.538***
	집단내	383.174	547	.701	
	합계	418.953	549		

*** $p<.001$

표 16. 자리적 차이에 따른 여가활동의 사후검증

지역	서울	광주	고흥
서울		*	***
광주	*		***
고흥	***	***	

* $p<.05$, *** $p<.001$

우 심리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높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흥지역의 노인들 73.7% 이상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가활동보다는 현업을 우선시하는 경향 그리고 한가한 시간과 농한기 때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하나 <표 18>과 같은 결과로 인하여

표 17. 여가활동 만족이유

(단위: 명, %)

구분	생활의 보람	건강유지	정서의 순화	스트레스 해소	고독감 해소	합계	
서울	31 (27.4)	28 (24.8)	14 (12.4)	18 (15.9)	22 (19.5)	113 (100.0)	$\chi^2=19.658^*$ $df=8$ $p=.012$
	14 (20.9)	13 (19.4)	1 (1.5)	21 (31.3)	18 (26.9)	67 (100.0)	
고흥	4 (44.4)	1 (11.1)	0 (.0)	0 (.0)	4 (44.4)	9 (100.0)	
	49 (25.9)	42 (22.2)	15 (7.9)	39 (20.6)	44 (23.3)	189 (100.0)	

* $p<.05$

여가활동의 심리적 만족도와 실제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인 고흥은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여행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조사되었다.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노인은 175명(31.8%)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320명중에 96명(30%), 광주지역 150명중에 28명(18.6%), 고흥지역이 80명중에서 51명(63.7%)으로 조사되었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다는 비율은 고흥지역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이 전체의 18.6%로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노인이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이 92명(52.6%)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 33명(18.9%), 시설부족 26명(14.9%)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흥지역은 경제적 부담 이외 시설부족에 따른 불만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5) 최근 2년간 노인의 국내 관광여행 행동

최근 2년간 노인의 국내여행 참여의 빈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회(17.1%), 2회(16.9%), 1회(16.9%), 없다(15.3%), 4회(12.5%), 7회(8.9%), 5회(7.8%), 6회(4.9%)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분석결과 비율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회 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회(23.8%), 3회(19.1%), 1회(18.16%)의 비율을 보였고 7회 이상에서는(2.5%)에 그쳤다. 광주는 4회(20.7%), 3회(20.7%), 1회(20.6%)의 비율을 보였으며 7회 이상에서는(4.0%)을 나타냈다. 고흥

표 18. 여가 활동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시설부족	교통부족	정보부족	의욕상실	합계	
서울	57 (59.4)	22 (22.9)	3 (3.1)	3 (3.1)	4 (4.2)	7 (7.3)	96 (100.0)	$\chi^2=48.938^{***}$ $df=10$ $p=.000$
	13 (46.4)	3 (10.7)	3 (10.7)	1 (3.6)	1 (3.6)	7 (25.0)	28 (100.0)	
고흥	22 (43.1)	8 (15.7)	20 (39.2)	0 (.0)	0 (.0)	1 (2.0)	51 (100.0)	
	92 (52.6)	33 (18.9)	26 (14.9)	4 (2.3)	5 (2.9)	15 (8.6)	175 (100.0)	

*** $p<.00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의 경우는 7회(43.7%), 6회(23.7%), 5회(13.8%)의 비율을 보여 타 지역에 비해 관광을 통한 여가활동이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377.72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국내여행을 1회 이상 다녀온 횟수는 고흥(95%), 서울(84.1%), 광주(8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 노인이 놓어둔 지역 노인보다 국내여행 횟수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흥 지역에서는 농번기 또는 시간이 허락될 때 주민 친목도모에 따른 국내여행 횟수가 여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며,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여행을 통한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여행 결과를 볼 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국내 여행지를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노인은 섬(36.5%), 기타(17.6%), 명

산·사찰(12.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광주는 유적지·박물관(34.8%), 명산·사찰(26.1%), 섬(17.4%)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흥은 해안·항구도시(42.1%), 유적지·박물관(21.1%), 섬(15.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63.462$, $p<.001$)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은 섬, 광주는 유적지·박물관, 고흥은 해안·항구도시로 가장 많은 여행을 다녀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노인의 국내 여행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중응답을 통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섬이(25.9%)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적지, 박물관(17.9%), 해안·항구(17.3%), 명산·사찰(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여행경비 충당방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에게(37.5%), 본인 스스로(37.3%) 충당

표 19. 지역별 최근 2년간 노인의 국내여행 빈도

(단위: 명,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없다	합계
서울	58 (18.1)	76 (23.8)	61 (19.1)	35 (10.9)	26 (8.1)	5 (1.6)	8 (2.5)	51 (15.9)	320 (100.0)
광주	31 (20.6)	13 (8.7)	31 (20.7)	31 (20.7)	6 (4.0)	3 (2.0)	6 (4.0)	29 (19.3)	150 (100.0)
고흥	2 (2.5)	4 (5.0)	2 (2.5)	3 (3.8)	11 (13.8)	19 (23.7)	35 (43.7)	4 (5.0)	80 (100.0)
합계	91 (16.6)	93 (16.9)	94 (17.1)	69 (12.5)	43 (7.8)	27 (4.9)	49 (8.9)	84 (15.3)	550 (100.0)

*** $p<.001$

$\chi^2=377.723^{***}$
 $df=14$
 $p=.000$

표 20. 국내여행 방문 관광지

(단위: 명, %)

구분	온천	명산·사찰	해수욕장	섬	축제	해안·항구도시	관광단지(동원)	유적지·박물관	기타	합계
서울	4 (5.4)	9 (12.2)	3 (4.1)	27 (36.5)	4 (5.4)	10 (13.5)	3 (4.1)	1 (1.4)	13 (17.6)	74 (100.0)
광주	0 (.0)	18 (26.1)	1 (1.4)	12 (17.4)	2 (2.9)	10 (14.5)	0 (.0)	24 (.34.8)	2 (2.9)	69 (100.0)
고흥	0 (.0)	1 (5.3)	0 (.0)	3 (15.8)	0 (13.6)	8 (42.1)	2 (10.5)	4 (21.1)	1 (5.3)	19 (100.0)
합계	4 (2.5)	28 (17.3)	4 (2.5)	42 (25.9)	6 (3.7)	28 (17.3)	5 (3.1)	29 (17.9)	16 (9.9)	162 (100.0)

$\chi^2=63.462^{***}$
 $df=16$
 $p=.000$

*** $p<.001$

표 21. 지역별 여행경비 충당방법

(단위: 명, %)

구 분	본인스스로	자녀들에게	겟돈	적금	기타	합계	합 계
서울	120	164	34	0	2	320	$\chi^2=118.705^{***}$ df=8 p=.000
	(37.5)	(51.3)	(10.6)	(.0)	(.6)	(100.0)	
광주	45	41	59	3	2	150	$\chi^2=118.705^{***}$ df=8 p=.000
	(30.0)	(27.3)	(39.3)	(2.0)	(1.3)	(100.0)	
고흥	40	1	38	1	0	80	$\chi^2=118.705^{***}$ df=8 p=.000
	(50.0)	(1.3)	(47.5)	(1.3)	(.0)	(100.0)	
합계	205	206	131	4	4	550	$\chi^2=118.705^{***}$ df=8 p=.000
	(37.3)	(37.5)	(2.8)	(.7)	(.7)	(100.0)	

***p<.001

표 22. 지역별 관광·여행의 좋은 점

(단위: 명, %)

구 분	서울	광주	고흥	전 체
기분전환	233	100	59	392
	72.8%	66.7%	73.8%	71.3%
견문을 넓힘	46	38	5	89
	14.4%	25.3%	6.3%	16.2%
친목 도모	148	75	60	283
	46.3%	50.0%	75.0%	51.5%
문화교류	25	3	0	28
	7.8%	2.0%	.0%	5.1%
건강증진	85	16	2	103
	26.6%	10.7%	2.5%	18.7%
피로회복	93	22	20	135
	29.1%	14.7%	25.0%	24.5%
자연감상	23	21	2	46
	7.2%	14.0%	2.5%	8.4%
취미활동	42	4	1	47
	13.1%	2.7%	1.3%	8.5%
기타	2	6	1	9
	.6%	4.0%	1.3%	1.6%
전체	320	150	80	550
	100.0%	100.0%	100.0%	100.0%

***p<.001, **p<.01

표 23. 지역별 관광·여행 일정 비교

(단위: 명, %)

구 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일 이상	합계	합 계
서울	53 (16.6)	150 (46.9)	105 (32.8)	11 (3.4)	1 (.3)	0 (.0)	320 (100.0)	$\chi^2=45.546^{***}$ df=10 p=.000
	50 (33.3)	58 (38.7)	35 (23.3)	6 (4.0)	0 (.0)	1 (.7)	150 (100.0)	
고흥	38 (47.5)	25 (31.3)	16 (20.0)	0 (.0)	0 (.0)	1 (1.3)	80 (100.0)	
	141 (25.6)	233 (42.4)	156 (28.4)	17 (3.1)	1 (.2)	2 (.4)	550 (100.0)	

***p<.001

한다는 비율이 411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겟돈이 131명(23.8%)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자녀들에게(51.3%) 충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 양상을 보였지만, 겟돈이 59명(39.3%)으로 가장 높았고, 고흥지역은 본인 스스로가 40명(50.0%), 겟돈이 38명(47.5%)로 두 항목이 9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118.70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여행경비 충당방법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광·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응답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분전환(71.3%), 친목도모(51.5%), 피로회복(24.5%), 건강증진(18.7%)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문을 넓힐에서 광주가(25.5%) 고흥(6.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15.850$, p<.001)가 있었고, 친목도모에서는 고흥(75.0%)이 서울(46.3%), 광주(50.0%)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21.353$, p<.001)가 있었으며, 건강증진, 피로회복, 취미활동에서는 서울이 광주, 고흥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관광·여행 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박 2일(42.4%), 2박 3일(28.4%), 당일(25.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를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 1박 2일(46.9%), 광주 1박 2일(38.7%), 고흥은 당일(47.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45.54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지역 노인은 1박 2일 고흥지역의 노인은 당일이 적당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이 관광·여행일정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노인여가 활동의 지리적 특성

이상에서 나타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농촌 지역인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노인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 활동을 유형별 순으로 확인해보면, 우인교류형, 단독충실형, 건강추구형, 가족충실형, 자아추구형, 사회참여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리적 특성으로 요약해보면 서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광주지역은 주로 집안에서, 고흥지역은 주로 친목도모를 위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인 서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여가활동 관련 인프라인 공원, 여가 복지시설 등이 양호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반대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여가 활동의 주요특성이다. 노인의

가정 내 여가활동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광주는 TV시청, 화단, 정원 손질, 고흥은 압도적으로 TV시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여가가 타 지역에 비해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노인의 가정 밖 여가활동을 보면 서울과 광주는 등산·산보로, 고흥은 경로당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지역적 특징으로 서울과 광주는 가족 동반 외식, 고흥은 주거 미화작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을 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하지 않고 있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은 비용이 발생하는 학습활동과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가정 밖 여가활동과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의 결과에서 보듯이 노인의 여가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다양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제도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비용이 발생하는 건강관리 및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가 지역별 차이 없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서울은 36.6%, 광주는 40.7%, 고흥은 73.8%가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한 노인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노인 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경향을 살펴보면, 참여안함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봉사활동은 6.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비율을 확인하여보면 서울 6.3%, 광주 7.3% 고흥 6.2%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은퇴 노인들이 과거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

넷째, 여가활동의 궁극적 목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는 소외감 극복, 고흥지역은 가족화목을 높게 판단하였다. 이는 도시 거주 노인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의 전파속도가 늦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전통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는 고흥, 서울, 광주 순 이었으나 실제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광주, 서울, 고흥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 이유는 생활의 보람과 고독감 해소였는데, 이는 노인들의 삶이 은퇴이후에 사회내의 특정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없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느끼며, 사회에서의 역할 감소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여가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로는 전 지역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되었다. 고흥지역은 경제적 부담 이외 시설부족에 따른 불만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최근 2년간 국내여행 참여 빈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회(23.8%), 3회(19.1%), 1회(18.1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7회 이상에서는 2.5%에 그쳤다. 광주는 4회(20.7%), 3회(20.7%), 1회(2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회 이상에서는 4.0%를 나타냈다. 고흥의 경우는 7회(43.7%), 6회(23.7%), 5회(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흥 지역에서는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을 통한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여행경비 충당방법에서 서울은 자녀지원(51.3%), 광주는 갯돈이(39.3%), 고흥은 본인 스스로(50.0%)가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고령에도 지속적으로 농사 등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경제력 부분에서 대도시 노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여행의 좋은 점에서는 서울지역 노인은 건강증진, 피로회복, 취미활동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으며, 광주는 견문을 넓힐과 자연감상, 고흥은 친목 도모를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관광·여행 일정에 있어 서울과 광주는 1박 2일, 고흥은 당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유명 관광지나 온천여행의 경우 서울 인근 지역보다는 타 지역을 계획하고 가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당일보다는 1박 2일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노인의 여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노년기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가정적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여유 있는 시간이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이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여가라 할 때 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노인들은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 이후의 삶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공공기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경제적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노인들은 공공기관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활동 참여율은 높았으나 비용이 발생하는 여가활동의 참여는 저조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여가 활동의 진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서구 유럽, 북미, 일본 등에서는 노인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몇 년 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노인의 지역별 여가 행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노인 여가복지의 제도적 정비와 누구나 참여 가능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여가 활동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OECD국가의 고령화 대응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이 중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본의 정년 연장(60세~65세)과,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금지(2006년), 프랑스는 고령자 고용 촉진 등 노동개혁을 통해 만 57세 이상 고령층에 대하여 18개월까지 계약직 채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50세 이상 근로자 해고 시 실업보험 기금 부담금을 폐지하였다. 미국은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고 직장 내 조기퇴직(62~64세)의 경우는 연금을 삭감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전 국민 공적 연금을 실시해 퇴직 후 연금을 일한 때 낸 만큼 받게 하여 고용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의 고용 연장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여가의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물리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

-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통계에서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2009)은 다음과 같다.

상 위		하 위		상 위		하 위	
시도	비율 (%)	시도	비율 (%)	시군구	비율 (%)	시군구	비율 (%)
전남	18.0	울산	6.6	경북의성	31.4	울산동구	5.1
경북	15.4	인천	8.3	경북군위	31.4	울산북구	5.2
전북	15.0	대전	8.4	전남고흥	31.4	경남창원	5.6
충남	14.8	경기	8.4	경남의령	30.1	울산남구	5.6
강원	14.4	광주	8.7	경남합천	30.0	경기오산	6.0

- 2) 본 연구의 연구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게 된 이유로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고 대도시라는 상징성과 수도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광주 광역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5대광역시중 비교적 고령화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 용이하여 선정하였으며, 전남고흥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연구지역의 노인

지 역	총인구(명)	65세 이상(명)	65세 이상 인 비율(%)
서울	10,575,447	1,007,572	7.28
광주	1,454,636	130,457	8.89
고흥	73,924	23,651	32
전국합계	48,875,000	6,037,000	12.35

자료: 통계청, 서울특별시, 광주시, 고흥군청(외국인제외)

- 비율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의 고령화 비율은 7.28%, 광주광역시는 8.89%, 전남 고흥군은 32%이다.
- 3)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집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전남 고흥군 3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그 결과가 전국적인 추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통계자료 수집에 있어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자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 노인집단의 여가특성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분석하고 유의미한 지리적 차이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후 전술한 한계와 문제점은 관련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문 헌

- 김경호, 2004,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가족의 건강성, 무력감, 자긍심 및 행복감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2007, 노년학, 교문사.
- 박재간, 2002, 노인취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51-52.
- 오상훈 등, 2006,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오갑진·이수길, 2000, 현대인의 레저-여가론, 한울출판사.
- 이명규, 2008, 여가 활동을 통한 한국노인의 인생 만족도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춘식, 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사, 서울.
- 장인협·최성재, 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지영 등, 2004, 실버라이프에 대한 이해, 학문사.
- 조재숙,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여가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순남, 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재.
- 황선옥, 2001, 고령자 취업관련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54-155.

- 현외성 등, 1998, 한국노인복지학, 유풍출판사.
- Havighurst, R.J.& M.N. Donald, 1959, *The meaning of Leisure*, Social Science, May.
- Iso-Ahola, S.E.E. Jackson & E. Dunn, 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27~229.
- James F. Murphy, 1981, *Concepts of Leisure*, Prentice-Hall, Inc.
- John Neulinger,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Springfield, III Charles Thomas.
- John R. Kelly, and Geoffrey Godbey, 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Venture Publishing, inc.
- J. Dumazedier,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 Martin H. Neumeyer. 1958, *Leisure & Recreation*, 3rd ed. (New York: The Ronald Company).
- Millrr, N.P., and Robinson, D. M, 1963, *Leisure Age Its Challenge to Recreation*, Wordsworth, Belmont, California.
- M. Kaplan, 1960, *The Uses of Leisures*. In *Hand book of Gerontology*, Edited by C. Tidb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 Strang, 1957, *The Adolescent Views Himself*, New York, McGraw-Hill.
- Reitzes, D. Mutran, E, and L. A. Verrill, 1965, *Activities and Self-Esteem. Research of Aging*, 17(3), 260~277.
- Stanley Parker, 1972,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교신 : 박종천,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banyabong@yahoo.co.kr, 전화: 062-530-2680

Correspondence : Jong-Chun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anyabong@yahoo.co.kr, phone: (062)530-2680

(접수: 2011.6.11, 수정: 2011.7.20, 채택: 2011.8.19)